

경북도, 설 명절 中企 1200억 지원

용자대출 대출금리 2% 1년간 보전
제조·건설·전기공사업 등 11개 업종
‘도 중점 육성기업’, 업종 관계 없어

경북도가 설 명절을 대비해 1200억 원 규모의 설 명절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자금은 도내 중소기업이 14개 협력은행을 통해 용자대출 때 대출금리의 2%를 1년간 보전하는 2차 보전방식으로 운용된다.

지원대상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운수업, 무역업, 관광숙박시설업, 폐기물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자동차정비·폐차업,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11개 업종이다.

‘도 중점 육성기업’은 업종에 상관없이 용자 신청이 가능하다.

도 중점육성기업은 사회적기업, 일



경북도청

자리창업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청년고용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실라리안 기업, 프라이드 기업, 향토뿌리기업, 벤처기업, 마을기업 등이다.

접수기간은 11일~오는 29일이며 용자희망 기업은 대출 은행과 용자금액 등에 대해 사전 협의 후 경상북도 자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기업이 있는 시·군청 방문 및 우편

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군 자체 실정에 따라 접수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시·군청에 접수일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작년과는 달리 이번 설 자금은 온라인으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에 대해서는 신청기업이 직접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경북=김귀열 기자 gold6830112@metroseoul.co.kr

전북도, 역대급 한파에 재난기금 3억 투입

이면도로 제설작업 신속 추진

전라북도가 지난 6일부터 8일사이 도내 전역에 내린 평균 12.6cm의 폭설과 역대급 한파로 인해 얼어붙은 이면도로, 마을진입로의 제설·제빙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3억원을 신속 투입할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사진)는 지난 9일 한파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주요 간선도로 제설작업은 완료됐으나 이면도로 제설작업이 미진하다고 판단했고 보행자의 낙상위험과 주민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투입해 이면도로 제설작업 완료를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라북도와 시군은 6~9일 기간중 국도 25개 노선, 지방도 38개 노선, 시군도 363개 노선 등 간선도로 위주로 덤프트럭 등 제설장비와 인력을 총 투



입하여 도로제설을 추진한 바 있다.

앞으로 전북도는 겨울기간 동안 재난안전 대책본부와 협업부서가 긴밀히 소통해 고

통량이 증가하는 출퇴근 시간 전에 사전 제설작업과 강설 상황에 맞는 제설 인력·장비 투입으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한파 내습 시에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한박자 빠른 선제적 재난대비와 현장 밀착형 관리를 강조하면서, 도민들도 내 집, 내 상가 앞 눈 치우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북=강성대 기자 ksd1008@

경북도, 민간기업과 행정융합 ‘첫 발’

산학연계 선순환 체계 구축 아쉬움
각 산업별 관련부서와 협력 강화

경북도가 올해 도정 핵심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과 기업 등 민간기관과의 행정융합이 과학산업 분야에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철우 지사는 신년사에서 4차산업혁명시대에 혁신주체인 산·학·연간의 협력이 특히 중요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선 민간기관과의 행정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그동안 산학

협력은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술이전 및 창업보육을 통해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돼 왔으나, 공급자 중심의 산학협력 추진에 따라 산업계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산학연계 선순환체계 구축에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경북도 과학산업국과 지역 14개 대학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은 지난 7일 간담회를 가지고 현재 산학협력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효과적인 산학연협력모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모임에서는 행정-대학-기업-연구기관 등 지역 혁신주체들의 역량

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대학이 갖고 있는 연구 기반, 연구개발 실적, 특허, 연구인력 등을 분석해 대학별 강점을 도출하고, 각 산업별 관련부서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대학별 중점 특화 분야를 고려해 (가칭)경북산업혁신성장연구단을 구성해 기존 산학협력사업 재정립, 순수 R&D지원, 과학기술 저변확대 등을 목표로 민간의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경북=김귀열 기자

부산 향토기업, 2030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제품·전속모델 연계 홍보 동참

부산의 향토기업들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잇달아 힘을 보태고 있다.

부산시가 올해에는 미래 부산의 먹거리인 월드엑스포 유치 범국민 열기를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여러 차례 밝히고 있는 가운데 지역 향토기업들이 자사 제품, 전속모델과 연계한 홍보 활동에 동참 의사를 보내고 있다.

부산의 대표 캐주얼웨어로 알려진 그린조이가 자사 전속모델인 추성훈, 야노시호 씨를 통해 2030월드엑스포 응원 릴레이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동영상은 이달 말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모모스커피는 일일 200~800건의 택배를 발송할 때 월드엑스포 홍보물을 동봉할 예정이며 머거본은 월드엑스포 홍보문구를 새겨서 출시한다. 등산용품 생산기업 트렉스타는 포장지에 흥

보문구를 인쇄해 활용하고 자사 매장에 홍보 포스터도 부착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우유는 이 달부터 자사 대표제품 ‘위너365’에 홍보문구를 새겨 판매하고 있다.

앞서 세정은 자사 전속모델이자 대한민국 대표 배우 김태희 씨의 응원영상을 통해 월드엑스포 열기를 한껏 고조시킨 바 있다. 웰니스병원은 건물 외벽 현수막을 통해 응원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산주조는 지난해 900만병의 소주병 라벨에, 삼진어묵은 지난해 부산 지역 내 6개 매장에서 스크래치 쿠폰을 활용한 홍보에 참여했다. 이밖에 테퍼센트 커피는 지난해 11월부터 컵 홀더를 사용하여 엑스포 유치를 홍보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2021년 한해는 포스트 코로나를 넘어 부산의 미래를 열어 줄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

부산시 청년일자리 참여기업 모집

부산시가 2021년 행정안전부의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인 ‘부산형 청년 관광전문가 양성 사업(1유형)’에 참여할 관광기업 최대 8곳을 이달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산형 청년 관광전문가 양성 사업’은 지역정착 지원형으로, 올해는 신규 청년 8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한다. 대상 기업은 부산 소재 호텔, 여행사 등 관광 관련 기업이며 사업기간은 오는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다.

이 사업은 지난해 시작돼 20명의 청년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지역 관광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안정적 일자리와 관광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 관광생태계 경쟁력 확보 및 국제 관광도시 부산을 선도할 역량 있는 관광전문가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접수기간은 22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서류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부산=허의원 기자

관광두레 PD에 4개 시군 선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 관광두레’ 사업에 경북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포항시, 영천시, 고령군, 영덕군 등 4개 시군의 관광두레PD 4명이 최종 선정됐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2013년부터 시작한 ‘관광두레사업’은 지역주민을 관광두레PD로 선발해 주민 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주민사업체를 창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육성하는 지역 관광정책이다.

경북도는 2019년부터 ‘광역형’ 관광두레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왔다.

고령과 영덕, 영천은 ‘2019년 경북 광역 관광두레’ 사업에 선정된 지역으로 경북관광두레센터와 두레PD가 2년간 함께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 온 지역이다.

포항지역은 경북도 관광진흥사업의 하나인 문화기획전문가사업으로 역량을 높인 전문가 1명이 이번에 정부형 관광두레PD로 선정됐다.

관광두레PD의 활동기간은 기본 3년으로 종합평가로 2년이 연장되면 5년간 가능하다.

/경북=김귀열 기자



한파에 수영복 시위 나선 비정규직 근로자

광주 남구 다목적체육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소속 스포츠 강사와 종사자들이 거리에 나왔게 됐다”며 “남구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지난 8일 남구청사 앞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광주 남구 다목적체육관 비정규직 강사와 근로자들은 10일 “코로나19 여파로 다목적체육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소속 스포츠 강사와 종사자들이 거리에 나왔게 됐다”며 “남구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지난 8일 남구청사 앞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남구다목적체육관 비정규직 근로자

광주 복구, 소상공인 지원 대책 간담회

광주시 복구(구청장 문인)는 지난 8일 소상공인 단체·협회 관계자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피해 지원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복구는 이날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급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정부 지원 대책과 올해 구의 종합 지원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복구는 지난해 코로나19에 선제적으

로 대응하고자 민생경제활성화대책본부를 운영, 민생안정에 주력했다. 특히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복구재난지원금을 마련해 소상공인, 종교시설 등 총 2204곳에 9억 70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도 자영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전문기관과 협업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종합컨설팅과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펼친다.

/광주=강성대 기자